■ 괴운(槐雲) 칼럼

태강즉절 치폐설존(太剛則折 齒弊舌存)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복야공파 36세)

오늘은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진다.' 즉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태강즉절 치폐설존(太剛則折 齒弊舌存)의 고사성어에 대해 알아본다. 이 고사성어는 중국 전한(前漢)말 유향(劉向: 기원전 77-6)이 유가의 정치사상과 윤리도덕의 관념을 깊이 반영하여 선현들의 행적과 일화를 수록한 설화집인 설원(說苑)에 나오는 내용인데 최근 도가(道家)의 시조인 노자와 관련하여 주장도 있다.

어느 날 '노자'가 많은 눈이 내린 아침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요란한 소리에 '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자'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굵고 튼튼한 가지들이 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러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이보다 가늘고 작은 가지들은 눈이 쌓임에 따라 자연스레 휘어져 눈을 아래로 떨어뜨린 후에 다시 원래대로 튀어 올라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노자'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 나뭇가지처럼 형태를 구부러뜨려 순응하는 것이 버티고 저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이치구나. "부드러움은 단단함을 이긴다!" 바로 태강즉절(太剛則折)이다. 부드러운 것은 자신을 낮춤을 의미합니다. 벼가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듯 자신을 낮춰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한편, '노자'가 평소에 공경하며 따르던 스승인 '상용(商容)'이 노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자'가 그를 찾아가 마지막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상용'은 갑자기 입을 쩍 벌렸다가 다물고는 물었습니다. "내 이가 아직 있는가?" "없습니다. "그는 다시 입을 벌렸다 다물며 물었습니다. "내 혀는 있는가?" "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상용'이 말했습니다. "내 말을 이해하겠는가?" '노자'가 대답하기를, "단단한 게 먼저 없어지고 부드러운 게 남는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상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네! 천하의 이치가 모두 그 안에 있다네. "이것이 "치폐설존(齒弊舌存)"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이다. 말씀인즉, 주먹보다 부드러움으로 사람을 대하면 돈독한 정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태강즉절(太剛則折)의 고사는 나무도, 사람도, 힘·권력도 마냥 강하면 부러지기 쉬워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휘어져도 다시 서는 갈대· 억새가 되라는 말에 강한 나무가 서로 자기가 더 강하다며 양보도 없이 싸웠습니다. 강한 나무는 갈대. 억새를 보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쓰러지는 네가 무슨 힘이 있겠냐'며 조롱을 했지요. 그때 갑자기 강풍이 불자 갈대. 억새는 허리를 굽혀 바람에 몸을 맡겨 부러지거나 뿌리가 뽑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꼿꼿이 맞선 강한 나무가 뿌리째 뽑혀버린 것은 강풍에 맞설 만용은 있었지만 유연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힘. 권력은 매력적이나 영원하지 않고 돌고 돕니다. 강한 만큼 부러지고 뽑히는 것도 쉽습니다. 힘. 권력자들에게 던져주는 경고며 '힘을 빼라'는 메시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 권력자들은 힘을 가지려고 안달합니다. 돈. 권력의 힘이든, 가진 자는 군림, 지배하려고 합니다. '힘. 권력의 논리'만 믿고 강행하면 반드시 패망하고, 사람의 마음도, 세상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진리요 이치입니다. 이것은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서양 격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안동 권문들도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이 강한 것이며,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守柔曰强 柔之勝剛 弱之勝强)'는 지혜를 거울삼아 처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권순긍의 온고지신溫故知新

홍길동, '정의'의 이름으로

권순긍(세명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우리나라 사람치고 '홍길동'이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학교나 동사무소나 행정관서 어디를 가더라도 공문서식의 이름을 적는 난에 대부분 '홍길동'이 예시됐기 때문이다.

인기 있었던 고전소설 〈홍길동전(洪吉童傳)〉의 영향이기는 하지만, 사실 홍길동은 실존 인물이었다. 연산군 때의 도둑으로,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인륜을 어기는 죄를 짓고 가출하여 도둑이 되었으며 산채는 문경 새재에 있었고 당상관의 복색으로 관가에 출현하여 지방 관아를 어지럽혔다 한다. 1500년(연산군 6) 10월 22일 『연산군일기』를 보면 영의정 한치형, 좌의정 성준, 우의정 이극균이 "듣건대 강도 홍길동을 잡았다하니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청컨대 이 시기에 그 무리들을 다 잡도록 하소서."하여 왕과 같이 홍길동 잡은 것을 축하했다 한다. 그런데 그 도둑이 어떻게 소설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됐을까?

의적(義賊)을 형상화한 〈홍길동전〉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許筠, 1569~1618)은 당대 사회의 예교에 저항했던 인물로 도둑 홍길동의 행적에 관심을 갖고 소설을 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길동이 활동하던 시기가 연산군 때니 무도한 정치에 항거하던 홍길동은 오히려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실제로 16세기는 조선사회를 지탱하던 봉건제의 모순이 표면화되어 홍길동뿐만 아니라 임꺽정, 순석 등 군도(群盜)들의 출현이 빈번했던 '민란의 시대'였다. 이 군도들은 "모이면 도적이 되고 흩어지면 백성이 된다.[聚則盜 散則民]"고 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사실은 피폐한 백성들의 무리였다. 가혹한 세금과 수탈에 시달려 농토로부터 도망한 유민(流民)들의 무리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도적질이 아닌 '농민저항'의 성격을 갖는다.

〈홍길동전〉의 역사적 의미도 여기에 있다. 홍길동이 해인사를 털고 나서 "스스로 무리를 활빈당이라 하면서 조선 팔도로 다니며 각읍 수령이 불의로 모은 재물이 있으면 탈취하고, 혹시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되, 백성의 재물은 조금도 침범치 않고 나라의 재산에는 추호도 손을 대지 않았다."한다. 이른바 '의적(義賊)'으로, 곧 활빈당(活貧黨)활동을 통하여 농민저항을 형상화시킨 것이다. 홍길동의 실제 행적은 의적이 아니었지만 소설 속에서는 의적으로 형상화 됐던 셈이다.

자아실현과 '정의'에 대한 꿈

그러면 〈홍길동전〉은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가?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바로 서자(庶子)로서의 한이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자·맹자를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 대장인(大將印)을 허리에 비스듬히 차고 동정서벌(東征西伐)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오래도록 빛내는 것이 장부의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찌하여 이 한 몸 적막하여, 부형이 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심장이 터질지라.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서자이기에 벼슬길이 막힌 것을 통탄해 하고 있었다. 예전에 출세하는 길은 과거 밖에 없었다. 비록 아버지 홍판서가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허락했지만 사회적 공인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홍길동이 가출을 결행한 것은 자신을 죽이려던 자객 특재와 관상녀를 죽였기 때문이다. 즉 집안에서 불의한 사람들을 살해했기에 범법자가 되어 망명도생(亡命圖生)을 결행한 것이다. 이제 남은 길은 〈수호전(水滸傳)〉의 영웅들이 그렇듯이 도적이 되는 것이다. 의로운 일을 행하다 범법자가 되어 모여드는 도적굴은 그들에게는 일종의 해방구였다. 거기에는 세상의 법률이 미치지 않는 그들만의 규약이 있었다. 백성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나 불의한 사람들을 징치(懲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적으로서의 책무가 그것이다. 〈홍길동전〉에서 그들 집단을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당'인 '활빈당(活貧黨)'으로 이름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행동규약을 정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홍길동은 활빈당 행수(行首)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나가지 않고 병조판서가 되고자 했다. 이제 봉건정부에 대항했던 위치에서 봉건정부의 병권을 휘두르는 자리인 병조판서가 되길 원한 것이다. 봉건정부가 신출귀몰한 자신을 잡을 수 없자 "길동은 아무리 하여도 잡지 못할 것이오니, 병조판서 벼슬을 내리시면 잡히리다."라는 방을 써 붙여 이런 엄청난 제안을 한 것이다. 홍길동이 병조판서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절대 아니다. 애초 병조판서를 제수한 것도 홍길동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소신의 죄악이 지중하온데, 도리어 은혜를 입사와 평생의 한을 품고 돌아가 전하와 영원히 작별하오니, 부디 만수무강하소서."라고 임금에게 직책을 수행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병조판서 제수는 일종의 한풀이이고,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지, 그 직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없었다.

그러기에 진정한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이제 조선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서자라는 신분도, 도둑의 대장이었다는 전력도 문제되지 않는다. 홍길동에게 '율도국(聿島國)'은 신세계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한 것이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삼년에 산에는 도적이 없고 길에는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지 않으니 태평세계"라고 한다. 서자인 홍길동이 왕으로 활약하여 풍족한 세상을 만들었던 것이다.

역사의 고비마다 혹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그 빛나는 이름으로 홍길동은 살아있다. 실제로 구한말 일제의 침탈에 항거하며 무력투쟁을 벌였던 무장집단의 이름도 '활빈당'이었다.

그건 아마도 우리에게 자유와 정의에 대한 꿈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기에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영웅적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세계가 혼란스러운 요즘, 홍길동을 통해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

정읍종친회원 시조 묘소 참배

정읍종친회(회장:권병석) 회원 20여 명은 지난 4월 19일(일) 7시경 전라북도 정읍을 출발하여 4시간을 달려 11시에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동재사에 도착하여 안동사무소 권오익 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시조님 묘소에 준비해 온 주과포(酒果脯)를 차려놓고 참배한 후 시조님의 공덕과 묘소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계하에 있는 평창공(휘: 옹)에 대한 이야기와 그 밑에 있는 풍산류씨 입암공(휘: 중영)의 관계와 능동재사를 설립 유래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안동시내에 있는 태사묘(太師廟) 인근에서 이곳의 별미인 찜닭으로 점심을 들면서 고려의 개국공신인 삼태사 위업을 새기며, 태사묘로 이동 삼태사 위패를 모신 묘우(廟宇)에서 성배하고 그 당시의 병산전투와 고려 개국공신 삼태사의 업적과 태사묘의 유래를 해설사로부터 자세히 듣고 경내를 관람한 후 삼태사의 덕업을 가슴에 새기면서 제수성금으로 20만원을 헌성하고 하회마을을 둘러보고 오후 4시경 정읍으로 떠났다.

권오익 안동사무소

2026年 5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3.26. ~ 4.23. 총 납부자 96명 총 4,840,000원

(이름순) (단위: 원)

권긍림(전북 군산) 30,000	권성호(경북 예천) 30,000	권오기(경북 안동) 30,000	권재영(경북 안동) 30,000	권혁열(강원 강릉) 30,000
권기창(경북 안동) 30,000	권순관(대구 수성) 30,000	권오범(서울 노원) 30,000	권종웅(대구 달서) 30,000	권혁열(충북 음성) 30,000
권기창(경북 안동) 30,000	권순늠(경북 안동) 30,000	권오성(서울 강남) 30,000	권중길(경북 포항) 30,000	권혁용(강원 강릉) 30,000
권덕규(경북 안동) 30,000	권순복(강원 강릉) 30,000	권오식(경북 안동) 30,000	권지안(충남 천안) 30,000	권혁원(충남 홍성) 30,000
권덕웅(서울 양천) 30,000	권순욱(경북 문경) 30,000	권오열(충북 진천) 30,000	권창우(대전 동구) 30,000	권혁조(경북 안동) 30,000
권도희(경북 상주) 30,000	권순자(경북 안동) 30,000	권오영(서울 강동) 30,000	권충강(대구 수성) 30,000	권혁조(경북 포항) 30,000
권동기(경북 안동) 30,000	권순창(강원 횡성) 30,000	권오준(경기 부천) 30,000	권태경(충남 보령) 30,000	권혁주(강원 강릉) 30,000
권동욱(충북 제천) 30,000	권순한(서울 강남) 30,000	권오창(경북 포항) 30,000	권태구(경북 안동) 30,000	권혁중(강원 강릉) 30,000
권동일(경북 안동) 30,000	권순혁(경북 안동) 30,000	권옥분(경북 안동) 30,000	권태철(경북 안동) 30,000	권홍목(세종 달빛) 30,000
권동찬(경북 경주) 30,000	권영국(경북 안동) 30,000	권용선(경북 안동) 30,000	권태환(경기 양주) 30,000	권훈천(경남 남해) 30,000
권두현(경기 수원) 30,000	권영달(경남 산청) 30,000	권용섭(강원 강릉) 30,000	권태훈(대구 달서구) 30,000	권희용(서울 동대문) 30,000
권명식(서울 강서) 30,000	권영배(경기 부천) 30,000	권용진(경북 안동) 30,000	권택문(경북 예천) 30,000	안동권씨 경산종친회 500,000
권명안(경기 의정부) 30,000	권영복(서울 성북) 30,000	권용호(경북 영주) 30,000	권학식(제주 서귀포) 30,000	안동권씨 논산종친회 300,000
권문기(경기 양평) 30,000	권영봉(경북 안동) 30,000	권우택(서울 강북) 30,000	권혁근(강원 강릉) 30,000	안동권씨 복야공파 30,000
권봉열(경북 안동) 30,000	권영석(서울 관악) 30,000	권욱경(강원 원주) 30,000	권혁기(서울 양천) 30,000	안동권씨 부산종친회 1,000,000
권상만(강원 평창) 30,000	권영석(서울 은평) 30,000	권원홍(대구 남구) 30,000	권혁길(강원 강릉) 30,000	안동권씨 부호장공파 300,000
권상호(서울 강북) 30,000	권영선(서울 광진) 30,000	권장호(강원 춘천) 30,000	권혁도(경북 예천) 30,000	
권석진(전남 나주) 30,000	권영숙(경북 안동) 30,000	권재국(경남 산청) 30,000	권혁도(서울 노원) 30,000	
권성덕(경북 영덕) 30,000	권영일(경북 안동) 30,000	권재동(경남 합천) 30,000	권혁묵(강원 강릉) 30,000	
권성유(충남 제천) 30,000	권영존(충북 청주) 30,000	권재수(경남 진주) 30,000	권혁상(대구 수성) 10,000	

*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서울지역종친회 유적지 참배

회원 여러분!
광릉은 조선왕조 제7대 세조대왕의 능으로 주위에 광릉수목원과 신라 천년의 역사로 봉선사가 자리하고 있어 사적지로도 유명한 곳이기에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 2026년 5월 10일(일요일) 10시
♣장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광릉
♣교 통 : 전철 4호선 오남역 1번 출구 10시

◈ 연락처
회 장 : 권영복 010-2456-6865
사무국장 : 권순휘 010-3797-1874
총 무 : 권지은 010-5413-0287

2026년 5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영복

서울산악회 제361차 정기산행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61차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26년 5월 17일(일) 10시(시간엄수)
♣집합장소 : 7호선 용마산역 1번 출구
♣산 행 지 : 용마산
♣준 비 물 : 도시락, 간식, 개인 필요 장비

● 회 장 권정찬 : 010-5392-6222
● 등반대장 권오윤 : 010-9027-6179
● 총 무 권혁구 : 010-2240-4242

2026년 5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정찬